

르 꼬르뷔제의 '성장하는 미술관' 개념의 전시공간디자인 특성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Exhibition Space Design of the 'Museum of Unlimited Growth'
by Le Corbusier

서수경* / Suh, Swoo-Kyung

허범팔** / Hur, Bum-Pal

Abstract

Le Corbusier (1887-1965) is known as a great architect ranking with such master architects as Frank Lloyd Wright and Mies van der Rohe who produced great architectural achievements in an era from the dawning to the maturity of the modern architecture. His works are marked for their peculiarity in expressing his architectural concept as perceived through his artistic sensibility. He has brought the form of his architecture to perfect through the influence of Purism.

His architectural concept has instigated him to construct the relations between structure, form and the notion of space through the 'Dom-ino' structural system and the 'Five Principles of the Modern Architecture.' As a result, he has become such an architect as has ripened his works by adopting the "Modulor" for human measurement.

During the decade from 1929 to 1939, he made public the 'Museum of Unlimited Growth' programs in an attempt to give a concrete form to his concept of "unlimited space" spreading to all directions, which was actually visualized by the constructions of three art museums, located Ahmedabad and Chandigarh in India and Tokyo in Japan. Although a number of researches have so far been publicized on the works and the architectural ideas of Le Corbusier, no systematic research has yet been released on the idea of 'Museum of Unlimited Growth' as a matter of fact.

Therefore, this study has set its purpose to grasp the peculiarities of his exhibition space design through an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Museum of Unlimited Growth' so designed as to reflect the concept of a space, which is centrifugally growing. With this purpose in mind, this research is also to suggest how the design of the 'Museum of Unlimited Growth' would influence the modern museum exhibit space. The contents of this study comprise the consideration on the early ideas of Le Corbusier, the typical features of the growing museum and the analysis as well as the integration of his works.

키워드 : 르 꼬르뷔제, 성장하는 미술관, 전시공간디자인

Keywords : Le Corbusier, Museum of Unlimited Growth, Exhibition Space Design

1. 서론

르 꼬르뷔제(Le Corbusier, 1887-1965)는 라이트(Frank Lloyd Wright) 그리고 미스(Mies van der Rohe)와 더불어 현대건축의 여명기로부터 성숙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업적을 남긴 위대한 건축가이다. 그는 이성적인 감각을 바탕으로 인간화된 자연관을 주요사상으로 품은 시인이자 화가이며, 건축가이다.

그의 작업은 화가로서의 감성으로 그림과 건축을 동일한 개념으로 표현하면서 건축작품과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런 점에서

다른 건축가와 구분되며, 그를 순수주의(Purism)를 주창한 화가로도 본다.¹⁾ 따라서 그의 작품은 건축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와 독자적 사고의 깊이, 자연형태로부터 추상화된 조형까지 유도해 낸 창조의 작업을 높이 평가받게 된 것이다.

그는 '도미노'(Dom-ino)구조시스템과 '현대건축의 5원칙'을 통하여 건축의 구조와 형태와 공간의 상호관계를 정립하였고, 평면의 그리드(grid)나 인간 척도인 모듈러(Modulor)의 적용으로 그의 건축이념을 확립한 건축가이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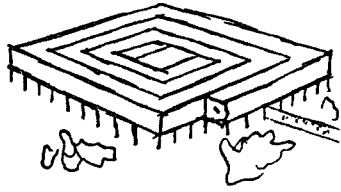
* 정희원, 숙명여자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부교수

** 정희원,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실내디자인학과 교수, 공학박사

1)정인국, 근대건축론, 문운당, 1994, p.125

2)김도석 외, Le Corbusier-건축작품 읽기(정인하 편), 기문당, 1999, pp.48-51

또한 건축구성원리의 하나인 ‘공간은 무한하며, 어떤 구속 없이 사방으로 뻗어 나가는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한 작품이 ‘무한으로 성장하는 미술관’(Museum of Endless Growth, 1929-39) 계획안이다. 이 계획안의 기본



<그림 1> 성장하는 미술관의 기본개념 스케치

개념은 중심성이 있는 정방형의 나선형공간으로 연속적으로 확장 가능하도록 성장하는 개념이다. <그림 1 참조>이 성장하는 개념에 따라 실제 설계된 미술관이 3곳에 있는데 인도의 아메다바드(Ahmedabad)와 샨디갈(Chandigarh) 그리고 일본 도쿄(Tokyo)의 미술관이다.

지금까지 르 꼬르뷔제의 건축 작품이나 그의 사상에 관련된 연구나 저서는 많이 있으나 ‘성장하는 미술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심성을 가지고 성장하는 공간개념에 따라 설계된 ‘성장하는 미술관’의 디자인 특성과 실현된 작품분석을 통하여 그의 건축이념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으며, 현대유지업 건축계획에 미칠 영향을 제시하는데도 의의가 있다.

연구내용의 구성은 르 꼬르뷔제의 초기이념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미술관의 유형특성과 실시작품분석 그리고 종합을 순서로 한다.

2. 르 꼬르뷔제의 생애와 건축이념

2.1. 생애와 건축 활동

(1) 생애와 초기교육

르 꼬르뷔제의 본명은 샤를 에두아르 잔느레(Charles-Edouard Jeanneret)로 1887년 10월 6일 스위스 북부 라쇼드퐁(La Chaux de Fonds)³⁾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죠르즈 에두아르 잔느레-그리(Georges Edouard Jeanneret-Gris)는 시계문자판에 에나멜을 칠하는 기술자였고, 어머니 마리 샤를로트 아멜리에(Marie Charlotte Amelié)는 피아니스트이며 음악교사로 활동하면서 가족의 정신적 가치와 문화적 분위기를 주도하였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여러 가지 동식물에 대한 지식을 배웠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자연에 대한 다양한 모습을 스케치하게 되었고, 그러한 작업이 그의 창작활동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자연에서 진실하고 울

바른 이치를 터득하게 되었다. 그의 어머니로부터는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라”는 교훈을 받아 그가 성장해서 까지도 행동의 지침으로 삼았다고 한다.⁴⁾

그는 공식적이고도 체계적인 건축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1902년 라쇼드퐁 장식미술학교(Art School in La Chaux de Fonds)⁵⁾ 시절 미술교육, 타고난 예술적 감수성, 철학적 논리훈련, 시의 적절하게 만난 스승, 그리고 반골기질의 강한 산악지방 출신이라는 지역적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그를 형성시킨 배경이다. 그는 그 교육과정에서 젊은 스승 샤를 레플라트니에(Charles L'Eplattenier)의 영향으로 조각훈련부터 건축교육·실무·교직 등의 기회를 부여받아 건축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와 독자적사고의 훈련 그리고 자연형태로부터 추상화된 조형까지 유도해 내는 창조적 과정 등을 훈련받았다.⁶⁾

그는 스승의 강력한 권유로 1905년부터 건축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1906-09년 사이에는 스케치여행과 실무를 통하여 다양한 훈련을 쌓게 되었다. 실무 과정 중 페레(Auguste Perret)와 베렌스(Perret Behrens) 등의 문하에서 실무 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은 큰 행운이었으며, 세 차례의 스케치 여행을 통해 건축에 대한 안목과 취향을 키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철학·문학·역사 등 다방면의 인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글을 쓴 훈련 역시 그가 건축가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바탕이 되어, 이미 청년기에 몇 권의 저서를 출간하게 된 것이다. (2) 건축활동

그의 최초의 건축활동은 그의 스승의 소개로 1908년 까지 습작에 속하는 주택 세 채를 설계하게 되었다. 그 후 파리에서 1908년부터 1910년 까지 페레아뜨리에서 처음으로 철근콘크리트구조와 시공을 배우게 되었고, 1910-11년 사이에는 베를린을 여행하면서 베렌스 사무실에서 본격적인 건축실무를 시작하였다. 이때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와 미스(Mies van der Rohe)와 교분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로부터 디자인 원리를 새롭게 체득할 기회를 가졌다.⁷⁾ 그 당시 독일의 수공예운동에 대한 연구도 하고 근대적 취향으로 변화하는 건축의 급진적 분위기를 익히는 계기가 되었다.

1911년 동방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설계한 작품은 잔느레 주택, 시네마스카라 영화관(Cinema Scala, 1916), 슈보브 주택(Villa Schwob, 1916)으로 다양한 요소가 혼재되어 있었으나 대칭의 고전성과 정방형의 비례감은 이미 초기작품에도 뚜렷이 나타나 있었다.

4)도미나가 유주류/ 김인산 역, 르 꼬르뷔제, 르네상스, 2005, p.50

5)라쇼드퐁 장식미술학교는 1873년에 설립되어 시계공업자를 교육시키기 위해 제도, 회화, 조각, 기하학, 드로잉, 자연스케치, 답사여행, 예술사, 금속작업과 세공 등을 교육한 전문학교

6)김도식 외, Le Corbusier-건축작품 읽기(류전하 편), 기문당, 1999, pp.16-20

7)윤도근 외, 현대건축의 거장들/ 르 꼬르뷔제, 현대미술관회 편, 1988, p.68

3)라쇼드퐁은 프랑스어지역으로 스위스 시계산업의 중심도시이다. 일년 중 반은 눈에 묻혀 있는 쥐라산맥의 계곡에 고립된 해발 1,000m나 되는 작은 도시로 인구는 2만7천 명 정도이다.

1917년 그가 30세 되던 해에 막스 뒤 보아(Max du Bois)의 주선으로 음악가인 형 알베르 잔느레(Albert Jeanneret)와 함께 라쇼드퐁을 떠나 파리로 이주하면서 본격적인 건축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는 1920년 10월 15일 「에스프리 누보」(L' Esprit Nouveau: 새로운 정신)라는 잡지를 창간하면서 「르 코르뷔제」(Le Corbusier)라는 예명을 사용하기 시작하여 건축가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게 되었다.⁸⁾ 1922년부터는 조카인 피에르 잔느레(Pierre Jeanneret)와 동업을 하였으며, 그는 1961년 이후 산디갈 도시계획 주임건축가로 활약하게 되었다.

2.2. 건축이념

(1) 기본이념

· 자연관 : 그는 일생을 통하여 어떤 원칙, 규범, 기준, 인간 척도 등을 추구하였으며, 자연 속에서 질서를 추구하였다.⁹⁾ 그의 자연관은 “자연은 언제나 무질서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예술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것임에 틀림이 없고, 기하학적인 우리들의 질서와 합치될 때 더욱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연을 기하학적 질서에 합치하도록 개조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자연의 스케치를 통하여 인간이 생활하는 도시의 형성을 마치 자연물의 생성(生成)을 탐구하듯 그렸다. 따라서 그의 작품에서는 자연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화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의 그림은 감각적인 강인함과 기하학적인 구성이고, 건축적 풍경이지만 자연의 풍경을 느끼게 하는 추상화된 빛과 그림자의 패턴이다.¹⁰⁾

· 인간의 기본요구 : 그는 인간의 기본요구를 ①육체적인 면에서 인간은 모두 도시계획의 기초물질인 태양, 공간, 수목을 향유하려고 한다. ②심리적 안락을 주어야 하는 점에서 온도조절, 환기, 음향차단 등이 요구되며, ③문화적 측면으로는 인간의 이상적 주거는 수직형을 추천하며, 그 속에는 세탁소, 상점, 체육관, 극장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¹¹⁾

이상의 세 가지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인간은 인간답게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상의 기본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인간다운 건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는 인간적이었다.

· 순수주의와 저술활동 : 그는 화가 겸 디자이너인 오장팡(Amédee Ozenfant)과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1918년 ‘입체파이후’란 제목의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문을 시작으로 1922

년 이후 출간한 많은 저서와 ‘백색건축’으로 불린 일련의 건축에서 자신 있는 출발을 하게 되었으며, 그들은 공동으로 새로운 조형세계를 지향하면서 큐비즘을 반박하고 그 대신 새로운 공간개념을 제안하게 되는데 바로 ‘순수주의’(Purism)¹²⁾라는 새로운 이름의 예술론을 전개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당시 기능주의자들의 열망과 표현주의적 감각을 결합시켰으며, 조소적 형태를 추구하는 자신의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거친 노출콘크리트 마감을 연구하게 되었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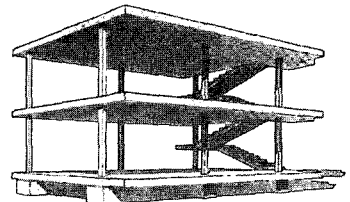
1920년에 시인 폴 데르메(Paul Dermée)와 화가 오장팡과 더불어 오늘날의 미학에 미친 국제주의적 잡지인 에스프리 누보지를 창간하였는데 그 잡지에 실린 논문들을 종합하여 그의 현대건축의 성격을 명확하게 나타낸 저서로는 「새로운 건축을 향하여, 1923」 「오늘의 장식미술, 1925」 「근대화화, 1925」 「유르바니즘, 1925」 등이다. 그의 최초 저서는 「독일에서의 공예운동에 관한 각서」 이고, 총 저술은 40여권에 이를 정도이다.

(2) 건축구성 원리

1923년 로슈 주택(Maison La Roche)으로부터 1928년 빌라 사보아(Villa Savoye)에 이르는 ‘백색시대’ 주택에 나타난 건축구성 원리들은 ‘도미노’ 구조시스템과 ‘현대건축의 5원칙’으로 정립되어 전 세계에 전파되었다.

· 도미노(Dom-ino) 구조시스템 : 그는 오귀스트 페레와 페터 베렌스의 영향을 받아 건축 구성 원리인 도미노 구조시스템(Dom-ino Prefabricated Skeleton, 1914-15)을 제안하고, 철근콘크리트구조시스템을 발표함으로써 본격적인 건축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도미노 구조는 그의 건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그 원리는 그가 제안한 ‘주거용 기계’의 개념을 구현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였기 때문이며, 또한 그것을 통하여 그의 작품에 적용된 다양한 조형적·공간적 원칙들이 담아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¹⁴⁾ 또한 도미노 구조는 코르뷔제 개인 뿐 아니라 건축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도미노 구조는 근대건축이 추구했던 기계주의의 본질을 내포하고 있으며, 철근콘크리트가 가지고 있는 구축성을 가장 이상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도미노 구조는 6개의 기둥으로 지지되고 3개의 수평 바닥판으로 구성되며, 맨 아래 바닥판은 콘크리트 기초



<그림 2> 도미노 구조시스템 투시도

8) 르 코르뷔제란 모계의 조상인 남플랑드르의 잔느레 가문에서 따온 이름으로 까마귀를 의미하는 포르보와 큐비즘을 연상시키는 친취적인 새로운 정신을 의미한다.
9) 정인국, 근대건축론, 문운당, 1994, p.125
10) 도미나가 유주류/ 김인산 역, 르 코르뷔제, 르네상스, 2005, p.56
11) Stanislaus van Moos/ 최창길 외 역, 르 코르뷔제의 생애, 기문당, 1995

12) 순수주의란 일상의 사물이 지닌 순수하고 기하학적인 형태를 추구하는 회화미학을 말한다.
13) 르 코르뷔제/ 조정훈 역, 르코르뷔제의 동방기행, 다빈치, 2005, 표지글
14) 김도식 외, Le Corbusier-건축작품 읽기(전인하 편), 기문당, 1999, pp.48-49

위에 얹혀있고, 각층은 계단으로 연결된다. <그림 2 참조> 이러한 구조시스템이 '현대건축의 5원칙'인 자유로운 평면과 입면에 넓은 개구부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 현대건축의 5원칙 : 1926년 출판된 「새로운 건축의 5원칙」은 도미노 구조시스템의 연장선상에서 그의 생애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한 건축구성 원리로 초기에는 로슈주택에서 그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으며, 사보아 주택에서 절정을 이룬다.¹⁵⁾

① 피로티(Pilotis) : 지면을 해방시키기 위해 최소한의 지지구조만 지면에 두고 모든 지면을 인간의 동선과 식물을 위해 할애되고, 거주공간은 그 위에 두는 원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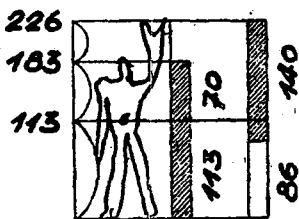
② 벽체를 구조에서 독립 : 외벽이나 내벽을 구조와 관계없이 독립시킴으로서 벽을 자유롭게 설치한다.

③ 자유스러운 평면 : 벽을 구조에서 독립시킴으로서 공간을 자유롭게 구성하며, 용도에 따라 가동적으로 벽을 이동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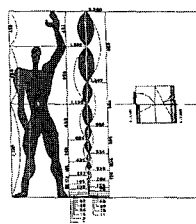
④ 자연스러운 외관 ; 외벽도 구조에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창을 길게 낼 수도 있고, 자연스러운 외관을 조성한다.

⑤ 지붕정원(Roof Garden) : 지붕을 생활공간의 일부로 연장하여 휴식공간으로 꾸민다.

· 모듈러(Modulor) : 인간척도(Human Scale)를 새롭게 창안한 것이 그의 모듈러이다. 그는 1948년 「모듈러」라는 책을 출판함으로써 그의 고유한 치수 개념이 전 세계의 관심사가 되었다.¹⁶⁾ 모듈러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치수와 기하학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정하고 있다. 한 변이 1.13m인 정방형을 곱친 치수가 2.26m가 되고, 그것이 실내치수의 기본이 되는 원리이다.<그림 3 참조> 그의 걸작들은 대부분 1940년대 후반기 이후에 설계되었는데, 그 작품들의 모든 치수-건축골조, 내부공간 안목치수·가구·내 외장재 등 모듈러와 연관되어 설계되었다.



<그림 3> 인간척도의 모듈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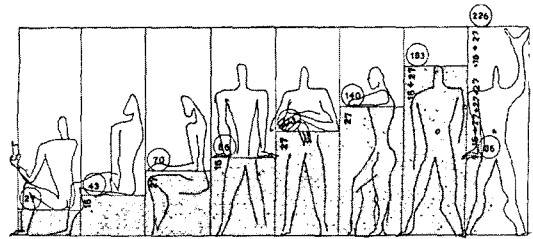
<그림 4> 모듈러-II

그는 후반기에 일반 스케일 대신 모듈러 띠를 애용하였으며, 회화에서 도시계획에까지 모듈러를 적용하였고, 되었다. <그림 5>의 모듈러와 인체치수는 깊은 관계가 있다. 예를 들면 최초의 27cm는 편안한 의자의 높이이고, 그 다음 16cm가 늘어난 43

15)정인국, 근대건축론, 문운당, 1994, pp.126-127

16)윤도근 외, 현대건축의 거장들/ 르 꼬르뷔제, 현대미술관회 편, 1988, p.72

cm는 일반 의자의 높이이며, 거기에 27cm를 더 한 70cm는 일반 의자에서 작업할 때 손의 적정 높이를 나타낸 수치이고, 최종적으로 2.26m는 실내 천장고를 나타낸 치수가 된다.



<그림 5> 모듈러와 인체에 적합한 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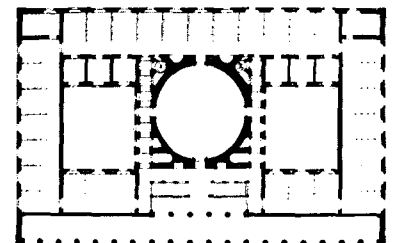
3. 전시공간의 유형과 성장하는 미술관의 특성

3.1. 전시공간의 유형분류와 특성

전시공간의 유형분류를 위해 근대뮤지엄의 원형으로부터 현대뮤지엄의 대표적인 사례를 시대별로 주요작가의 작품을 대상으로 분류하고, 그 유형별 특성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좌우 대칭의 고전적 유형

원켈(Karl Friedrich van Schinkel, 1781-1841)의 알테스뮤지엄(Altes Museum, 1823-30)은 근대뮤지엄의 원형으로 상징적인 대공간¹⁷⁾이 중심에 자리한 좌우대칭의 고전적 유형의 대표작이다. 이 뮤지엄에 나타난 고전적 기념성은 19세기 유럽과 20세기 초반의 30년 동안 미국 뮤지엄의 표본이 되었고, 공간구조 역시 근대뮤지엄건축의 전형이 되었다. 감성과 지성을 함께 자극한 이



<그림 6> 근대뮤지엄의 원형으로 중심홀을 가지며 좌우대칭의 특징을 가진 알테스 뮤지엄의 평면

뮤지엄은 고전 언어를 이용한 건축의 교과서이며, 장렬한 고전 양식의 과시와 시각적 다이내미즘과 기능적 해결이 일치된 걸작이다. 특히 중앙의 중심을 이룬 로툰다¹⁸⁾의 사례는 스투트가르트 국립미술관 신관, 본(Bonn)의 독일연방미술관, 그리고 한국의 국립현대미술관이나 전쟁기념관에서 그 유형을 찾아볼 수 있어서 그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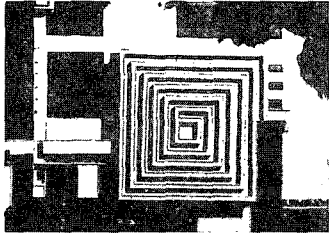
(2) 무한정으로 성장하는 유형

포르뷔제의 성장하는 미술관 계획(Museum of Unlimited Growth, 1929-39)안은 정방형의 나선형으로 중심성을 가진 무한정으로 확장이 가능한 유형<그림 7 참조>이다. 전체 건물을 피로티로 처리하여 사방에서 진입이 가능하게하고, 중심의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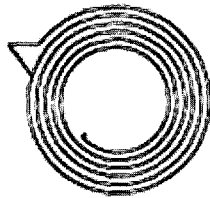
17)대공간(大空間)이란 건축의 대표되는 주요공간으로 중심성을 갖는다.

18)로툰다(Rotunda)란 구형건축의 중앙에 원형의 홀을 의미하며, 이 역시 대공간에 해당된다.

정에서 램프로 전시공간에 도달한다. 나선형 궤도의 아이디어는 '생물학적 또는 유기적'인 것에서 기원된 것으로 나선형은 '유기적 생명이 보여준 자연성장의 법칙'에 따른 것이다. 같은 시기에 라이트의 구겐하임미술관도 같은 개념이다.



<그림 7> 무한정으로 성장하는 나선형 미술관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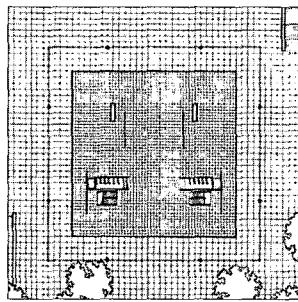
<그림 8> 유기적으로 연계된 구겐하임미술관의 모티브

(3) 유기적으로 연속성을 가진 유형

라이트의 구겐하임미술관(The Solomon R Guggenheim Museum, New York, 1943-59)도 코르뷔제의 무한정으로 성장하는 유형과 유사하게 대공간을 중심으로 연속된 전시공간이 돌레를 에워싼 형식<그림 8 참조>이다. 다만 진입형식이나 공간구성원리가 코르뷔제의 유형과 다르게 대공간을 위주로 한 점에서 분류를 달리한다. 이러한 유기적 건축¹⁹⁾은 전 세계 예술애호가나 건축가에게 충격을 주었고, 20세기의 랜드마크가 되었다. 이러한 장엄한 중심공간은 살아 움직이는 인간의 심장처럼 느껴져 마이어(Richard Meier)의 하이뮤지엄(High Museum, Atlanta, 1980-83)이나 게리(Frank O. Gehry)의 빌바오 구겐하임(Guggenheim Museum, Bilbao, 1991-97) 대공간에서 찾아볼 수 있다.

(4) 오픈 플랜(Open Plan)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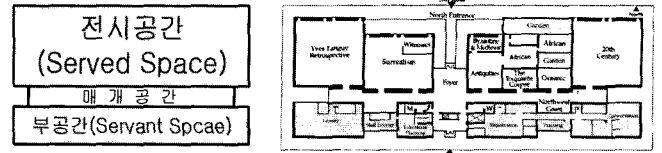
미스의 베를린 신국립미술관(New National Gallery, Berlin, 1962-68)은 종래 중심성을 가진 다른 유형과 달리 중심성을 부정하고 전체가 하나의 공간으로 오픈된 유형이다. 이러한 형식은 전시의 가변성을 전제하는 것임으로 어떤 전시도 가능하다는 개념이다. 벽체를 구조에서 해방 시킨 점은 코르뷔제의 이념과 동일하다. 채광형식도 종래 천창에서 부분적으로 유입한 유형과는 달리 전체 측창을 개방하여 자연광 유입은 물론 실내의 공간의 상호관류를 극대화 시키고 있다.



<그림 9> 무주공간의 오픈 플랜은 필요에 따라 자유로운 구획이 가능한 베를린 신국립미술관이 그 좋은 사례이다.

(5) 전시공간과 지원시설의 엄격한 구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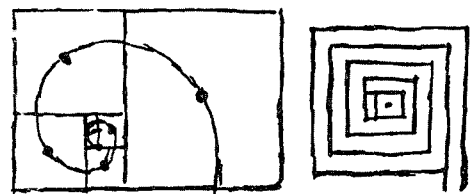
피아노(Renzo Piano)의 메닐 뮤지엄(Menil Collection & Museum, 1981-87)이나 풍곡두센터에서 전시공간과 지원시설이 선형으로 구분되는 유형이다. 따라서 전시공간은 필요에 따라 대·중·소로 구획되고, 상설전시와 기획전시공간의범위가 자유자재로 조절된다.



<그림 10> 선형으로 전시공간과 지원시설이 엄격히 구분된 메닐 컬렉션 사례

3.2. 성장하는 미술관개념의 전시공간디자인 특성

르 코르뷔제의 건축공간구성원리 중 하나는 “공간은 무한하며, 어떤 구속도 없이 사방으로 뻗어 나가야한다.”고 주장을 하였고, 그것을 뒷받침한 개념이 ‘무한으로 성장하는 미술관개념’이다. 이는 보행자의 흐름을 중요시 하였던 그의 사고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간개념을 바탕으로 실현된 작품의 특성은 3차원적인 나선형구조와 정방형의 지구라트²⁰⁾, 그리고 바다조개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중심성을 가지면서 무한정으로 확장 가능한 점이다. 그가 취한 나선형은 그가 성장한 라쇼 드퐁에서 이미 탐구된 것으로 유기적 성장(Organic Growth)을 나타내는 자연에서 발견된 패턴으로 나선형은 하나의 점에서부터 성장하는 질서를 의미한다. 나선형은 만(卍)자 모양으로 스와스티카(Swastika)라고도 한다.



<그림 11> 나선형 모티브의 성장하는 미술관개념 스케치

무제한으로 성장하는 미술관의 최초 아이디어는 1930년 12월 8일자 제르보(Christian Zervos)에게 보낸 편지내용에서 시작된다.²¹⁾ 기본개념은 ①정방형의 건물이 피로티에 의해 지탱되고, 건물은 지면에서 최소한의 구조체만 있을 뿐 진입동선이 사방에서 자유롭게 중정으로 도달하게 된다. ② 중정의 램프를 통해 전시층에 이어지며, 중앙 홀은 상하층이 오픈되고 자연광이 유입된다. ③ 전시공간은 시계방향으로 동선위계를 가지고 연속되고, 전시 벽은 가동적 패널을 설치하기도 한다. 이러한

19)유기적 건축(Organic Architecture)이란 꽃과 나무의 각 부분이 전체와 연관되듯 건축의 각 공간은 전체와 관계되면서 연속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20)지구라트(Ziggurat)는 고대 바빌로니아의 신전과 같이 높은 피라미드형의 탑으로 경사를 이용하여 연속되는 성스러운 탑을 의미한다.

21)Stanislaus van Moos/ 최창길 외 역, 앞의 책, pp.137-139

공간개념에 따라 계획된 안은 'The World Museum of Mundaneum Project, 1929' 'Pilotis for Museum of Modern Art Project for Paris, 1931' 'Museum of Unlimited Growth, 1939' 등이며, 이를 바탕으로 실현된 작품은 인도의 두 곳 (Ahmedabad, Chandigarh)과 일본 도쿄의 한곳이고, 유럽의 경우 프랑스, 독일, 스위스에 계획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다.

같은 시기에 라이트의 대표작인 뉴욕의 구겐하임미술관과 더불어 꼬르뷔제의 성장하는 미술관의 공간디자인원리는 현대 뮤지엄건축에 큰 영향을 미쳤다. fulcrum

4. 성장하는 미술관개념의 전시공간디자인 사례분석

르 꼬르뷔제가 '성장하는 미술관'의 공간개념을 발표한 이래 실현된 작품 3개를 분석하고 그 특성을 종합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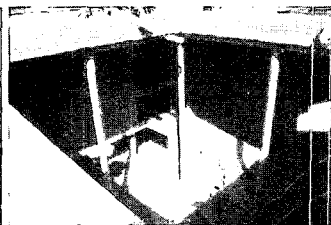
4.1. 아메다바드 미술관 (The Museum of the City, Ahmedabad, India, 1952-58)

(1) 건립배경

본래의 명칭은 N.C. Mehta Museum of Miniature이다. 아메다바드는 인구 3백만 명이 넘는 공업도시로 구자라트(Gujarat) 주의 중심도시로 특히 섬유산업이 발달하여 동양의 맨체스터라는 별칭을 가진 도시이다. 그곳에는 예상하지 못한 유적들이나 기념비적인 건축이 많은 도시이다. 현대건축으로는 꼬르뷔제가 설계한 섬유협회와 주택들이 있으며, 루이스 칸(Louis I. Kahn)이 설계한 인도경영대학원은 세계적인 규모와 질을 자랑한다. 이러한 수준의 도시로서 미술관을 건립하려는 계획은 당연한 발상이라고 생각된다. 미술관의 위치는 도심 남서쪽으로 3km 떨어진 공원지역 내 시립극장과 디자인학교와 더불어 문화지역을 이룬 곳이다.



<그림 12> 피로티 위에 붉은 벽돌의 무창벽이 강한 인상을 주는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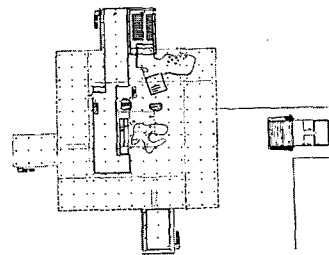
<그림 13> 지붕이 덮이지 않은 중심부인 중정

(2) 전시공간디자인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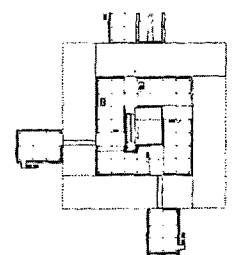
성장하는 미술관의 공간디자인원리에 따라 건물 전체를 피로티로 처리하고, 방문객은 그 사이로 진입하여 중심홀인 중정에 도달하여 램프를 통하여 전시층에 도달한다.²²⁾

중정은 상부까지 오픈되고 열대지방의 기후에 적절하게 공기의 대류현상을 위해 중정의 지붕을 개방시켰다.

전시장은 정방형의 중앙 홀을 에워싸면서 팔랑개비모양으로 중첩되고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성이다. 지붕층에는 옥상정원(Roof Garden)을 조성하여 야간 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좋도록 45개의 물탱크를 설치하여 냉각시키고, 나무를 심어서 그들의 효과를 내려고 했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다. 당초의 전시 계획은 본관이외에 자연사·고고학·인류학을 위한 부속동까지 계획되었으나 무산되었다.



<그림 14> 피로티로 처리된 지층 평면도



<그림 15> 나선형 계도의 전시층 평면도

4.2. 동경 국립서양미술관 (National Museum of Western Art, Tokyo, Japan, 1957-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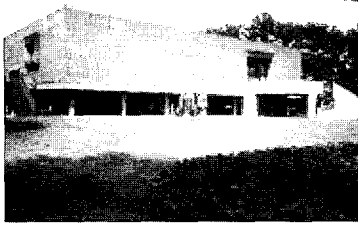
(1) 건립배경

프랑스에 거주하던 부호 마쓰가다 고지로(松方幸次郎)가 유럽 각지에서 수집한 많은 컬렉션이 세계 2차 대전 중 프랑스에 압류되었다가 일본 측이 새로운 미술관을 건립하는 조건으로 1953년 약 300점을 반환하는 조건 중 프랑스인이 미술관을 설계토록 되어 있어서 꼬르뷔제와 그의 일본인 문하생인 이다구라 준조(坂倉準三)와 마에가와 구니오(前川國男)의 협력으로 설계되었다. 1956년 최초의 기본계획안이 완성되었는데 그 종합 마스터플랜에는 미술관을 비롯한 다른 문화시설들이 콤플렉스를 이루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미술관만 건립하는 것으로 일본 정부의 제지를 받았다. 이후 중축된 신관은 1979년 마에가와 구니오에 의해 설계되었다.

(2) 전시공간디자인특성

로댕의 작품을 비롯하여 쿠루베, 모네, 르노와르, 고갱을 중심으로 하는 19세기 프랑스 회화의 명품과 르네상스 이후부터 20세기 중엽까지의 서양회화를 소장·전시하고 있는 이 미술관은 전방의 피로티를 통하여 진입되는 것이 사방에서 진입되는 다른 두 작품과 상이하나 입구에서 중심홀(19세기 홀)을 통하여 램프로 연결되는 수법, 모듈, 순회식 동선의 사용은 다른 작품과 동일하다. 이 미술관은 철근콘크리트구조(본관 면적 4,180 m²)로 외벽의 대담한 녹색과 거친 브루탈리즘의 배합은 강한 인상을 주며, 전체적인 공간을 지반층에서 들어 올린 필로티

22)Willy Boesiger, Le Corbusier, Praeger, 1972, pp.222-223



<그림 16> 대담한 무창의 녹색벽이 강한 인상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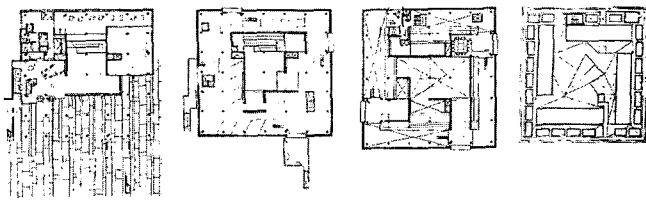
구법과 재료의 질박한 속성을 통해 꼬르뷔제의 건축적 어휘를 찾아볼 수 있다.



<그림 17> 상징적인 중앙 홀

2층의 전시공간은 개방된 중심홀 둘레를 나선형 전시공간이 에워싸고 4개로 구획된 각 공간은 중앙 홀과의 연계, 벽체의 배열, 층고에 의한 천장고의 차이, 그리고 공간의 연결과 막힘의 변화로 미묘한 감성의 차이를 느끼게 한다. 특히 중심홀은 2개 층이 오픈(높이 8.9m)되고, 피라미트 형태의 삼각형 천장으로부터 역동적인 자연광이 유입되어 생동감 있는 공간의 묘미를 느끼게 한다.²³⁾ 그러나 인도의 다른 두 작품에 비해 소규모여서 진입부의 피로티의 규모가 협소하고, 중심홀이 차지하는 평면의 비중이 과다하여 나선형체도의 개념이 희박하다.

현재 상설전시 및 노출전시는 본관의 2층에서, 기획전시, 특별전시 및 케이스전시는 신관부분에서 이루어지며, 본관의 1층부는 뮤지엄샵과 대형조각물의 전시로비(19세기 홀)로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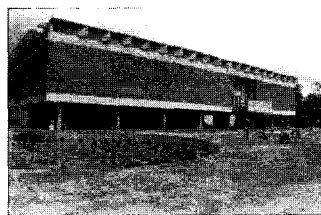
지층 2층 중2층 지붕층

<그림 18> 각층 평면도

4.3. 산디갈 국립미술관 (The Gov. Museum & Art Gallery, Chandigarh, India, 1964-68)

(1) 건립배경

전체 대지 약 7만㎡에 이 미술관을 비롯하여 기획전시동, 생명진화관, 강당, 보존연구동 등이 문화 콤플렉스를 이룬 곳으로 꼬르뷔제의 산디갈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건립된 것으로 고대에



<그림 19> 벽돌로 싸인 무창벽이 콘크리트 띠 위에 올라서고, 지붕의 띠가 안정감을 주는 전경

23) 김도식 외, Le Corbusier-건축작품 읽기(이재훈편), 기문당, 1999, pp.314-3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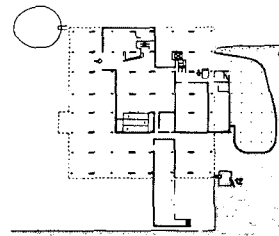
서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광범한 회화와 조각품이 소장되어 있다.

(2) 전시공간디자인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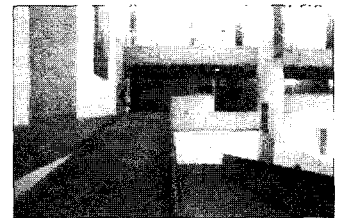
이 미술관도 다른 두개의 미술관 전시공간디자인과 같이 성장하는 미술관의 구성 원리로 중정을 둘러싸고 연속적인 전시공간구성을 보인다.

2층의 주전시공간은 주출입구 홀에 위치한 램프를 통해 진입이 가능하며, 지층 피로티 부분은 당초계획과는 달리 중앙홀 외의 워크숍, 학예실, 강의실, 접견실, 카페테리아 등이 추가로 설치되어 사방으로 접근이 다소 문제되었다. 중앙홀은 아메다바드의 경우와는 달리 지붕이 덮여 있다. 건물 전체는 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상부의 고창을 통한 실내의 일정한 조도확보를 위해 부분적으로 2개 층 또는 3개 층으로 개방되어 있으며, 3층에는 도서관과 사무실 등이 위치하고 있다.

기획전시공간을 위해 두개의 우산 형태(각각, 14mx14m 크기)로 이루어진 별도의 동(pavilion)을 두어 상설전시와 기획전시를 분리시켰다.



<그림 20> 지층 평면도



<그림 21> 램프로 전시층에 도달할 수 있는 중심 홀

4.4. 분석종합

분석된 세 작품들 모두 '성장하는 미술관'의 공간디자인원리에 따라 설계된 것으로 그 특성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일본의 경우 정부의 개입으로 다소 규모가 협소하고 신관 증축으로 인해 본래의 개념이 다소 희박한 느낌을 받는다. 그 분석 종합된 내용은 <표 1>과 같다.

5. 결론

르 꼬르뷔제는 화가이자 저술가로 건축기획과 도식계획을 수립할 때 회화와 건축을 결부시켜 예술적인 감성으로 조소적이고도 강렬한 건축 작품을 남긴 위대한 건축가이다.

그는 성장기 자연의 체험과 철저한 초기교육, 그리고 스케치 여행의 영향으로 그가 추구해온 자연에 대한 응용과 결부된 건축이념이나 전시공간 디자인원리를 확고히 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걸작들을 창출해낸 근대건축 거장의 한사람으로 높이 추대 받고 있다.

<표 1> 성장하는 미술관 사례분석 종합표

분석항목	아메다바드미술관	동경국립서양미술관	산디갈미술관
지층 평면도			
전시층 평면도			
평면의 크기 (m)	50 × 50	41.11 × 41.11	52 × 52
규모	지상 2층	본관: 지상 3층 / 지하 1층, 신관: 지상 2층 / 지하 2층	지상 2층
기동칸수(칸)	7 × 7	6×6	7×7
중정의 칸수(칸)	3 × 3	2×2	3×3
중정의 높이 (m)		8.9	
중정의 지붕유무	무	유	유
자연광의 도입	천창	천창	천창
공간디자인 특성	세 미술관 모두 피로티를 통하여 중앙의 중정에 도달하여 램프로 전시층과 연결되고, 중정을 중심으로 나선형 계도의 정방형 전시층이 구성된 점은 공통적이다. 다만 국립서양미술관의 경우 전체규모가 다른 두 개의 미술관에 비해 협소한데 비해 중정의 크기는 비슷하여 팔랑게비 모양의 전시공간 특성이 희박해 보인다.		
동선 체계	중심성을 가진 팔랑게비 형상의 전시공간이 연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동선코스는 모두 명확하다.		
채광 형식	중앙의 중정상부의 천창으로 도입되는 자연광이 전관을 밝히고, 전시공간은 천창을 통해 최대한 자연광을 유입하고 있다. 아메다바드미술관 중정의 지붕이 없는 것은 열대지방의 기후조건에 대응한다는 뜻으로 분석되나 오히려 열기가 더해 다른 두 작품은 지붕처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변시설	시립극장, 디자인학교	문화회관, 과학관, 박물관	기획전시동, 생명전시관, 강당

그는 '도미노' 구조시스템과 '현대건축의 5원칙'원리를 통하여 백색시대를 장식하였고, 인간 척도인 '모듈러'의 창안으로 기능과 인간적 질서를 바탕으로 한 작업이 그의 작품을 더욱 성숙시켰다. 특히 그는 '무한으로 성장하는 공간구성'원리를 바탕으로 생애 마지막 10년 동안 세 개의 '성장하는 미술관'작품을 실현하면서 그가 추구해온 중심성을 가진 정방형의 나선형 공간구성을 완결시켰다.

르 꼬르뷔제의 영향을 받은 현대 건축가들이 많은 중 특히 셉트(Josep L. Sert)는 르 꼬르뷔제와 서로 도움을 주면서 큰 자극을 받았으며, 제 3세대 건축가의 한사람인 리차드 마이어(Richard Meier)는 초기 백색건축의 주저작품으로부터 미술관 건축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고, 프랑스 건축가 앙리 시리아니(Henry Ciriani)도 '제1차 대전 역사박물관(1987-92)'의 전시공간디자인에서 꼬르뷔제의 개념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본다.

뮤지엄설계의 주요요건인 전시공간의 연속성이나 관람객의 흐름을 중요시 하는 동선체계, 그리고 자연광을 유입하는 건축적 해결 등 르 꼬르뷔제의 '성장하는 미술관'의 전시공간디자인 원리가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지속적으로 응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1. Willy Boesiger, Le Corbusier, Praeger, 1972
2. Willy Boesiger & Hans Girsberger, Le Corbusier 1910-65, Birkhauser, 1999
3. Deborah Gans, The Le Corbusier Guide,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000
4. 정인국, 근대건축론, 기문당, 1994
5. 김도식 외, Le Corbusier/ 건축작품 읽기, 기문당, 1999
6. Stanislaus von Moos/ 최창길 외 1인 역, Le Corbusier의 생애, 기문당, 1995
7. Le Corbusier/ 조정훈 옮김, Le Corbusier의 동방기행, 다빈치, 2005
8. 도미나가 유주류/ 김인산 역, Le Corbusier, 르네상스, 2005
9. 현대미술관회 편, 현대건축의 거장들, 현대미술관회 출판부, 1988
10. 서수경, 라이트·Le Corbusier·미스의 전시공간구성 특성 비교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21호 1999. 11

<접수 : 2006. 10. 31>